

“불자들이 인내하는데도 한계 있다”

자승 스님, 종교갈등 방지 법제화 강조... 불교법회 대응 대구불교연합 창립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개신교의 불교법회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불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종교갈등을 막기 위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1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구 불교총연합회 창립총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종교간 공존이 지속되려면 불교계의 인내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법적 제도 마련과 종교간 대화·협력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자승 스님은 “다종교 사회에서 그 동안 종교분쟁이 없었던 것은 불교계의 인내와 자제 때문”이라며 “현 상황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자승 스님은 이날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한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개신교계의 혐의분포와 반발을 받고 역사문화사업 추진을 백지화 시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우)과 이날 대불총 회장으로 선출된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좌)을 비롯한 5000여 사부대중이 대구불교총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정법수호를 발원하고 있다.

데 대해 직접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일련의 사태에는 현 대구시장의 책임도 있다. 향후 공헌 등에는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이날 대구·경북지역 불자들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자

제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한국 불교가 인내하지 않고 맞대응하는 순간 한국사회는 종교전쟁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법제화와 종교간 협력에 불자들이 앞장서자”며 “그 후에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시 정법수호를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말자”고 축사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직지사 주지 성문 스님, 은해사 주지 단관 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스님 1000여 명, 김범일 대구시장, 도이환 대구시의회의장, 우동기 대구교육감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1부 창립총회 2부 문화공연에 이어 진행된 법요식에서는 최근 벌어진 개신교의 불교법회 사태를 담은 동영상 상영됐다.

이에 앞서 창립총회에서는 초대 회장에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상임부회장에 태고종 대성사 도산 스님과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해명 정사, 사무처장에 동화사 사회국장 정필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노덕환 기자 · 손문철 대구지사장

“출가 29년 뒤편 나 싫어요”

설법연구원 대표 동 출 스님

“생로병사라는 말을 이제는 못하겠어요. 모를 때는 생로병사라는 말을 했는데... 죽음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앞도 안보이고 그냥 캄캄했어요. 생사가 그렇더라고요. 쉽게 죽으려면 죽는 것 같더라고. 출가한지 29년이 다 되도록 뒤편 나 싫어요. 사람들은 나더러 한 것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수행도 전혀 안 돼 있고, 죽음에 대한 준비도 전혀 안 됐거든요.”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11월 30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2층에서 동출 스님(사진)을 만났다. 밝게 웃었지만 스님은 부쩍 험악해진 모습이었다. “스님,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동출 스님에게 안부를 물었다. 염려와 안도가 묻어 있었다.

이날 스님은 불교활동가 이준엽 호남불교문화원 실장, 노귀남



불교포럼 실행위원장에게 각각 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지원금 전달은 스님이 2001년부터 매년 2-3명의 불교단체 활동가에게 해오던 사업이다. 3년 만에 7회 전달이 여법하게 진행됐다. 지난 9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스님에게 올해 전달은 어느 해보다 의미 깊은 전달식이었다.

의식 회복 후 동출 스님은 “이렇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스님은 최근 ‘준비된 죽음’을 위해 관계를 정리정돈하고 있다.(4면 계속)

글=이상연 기자, 사진=백재원 기자

정찬주의 행복한 禪·다행 ⑤

순례란 풍류의 도다

밀인사

신라 최치원은 유불도(儒佛道) 3교가 포함된 우리 고유의 본래사상을 현묘지도(玄妙之道)라고 했다. 이 현묘한 도를 신라 귀족들의 자제인 화랑들은 전국의 명소를 순례하면서 연마했는데, 그것을 화랑도 혹은 바람처럼 흐르면서 닦는 도라 하여 풍류도(風流道)라고 불렀다.

〈삼국유사〉를 엮은 일연 스님은 비술산에 살았던 두 성인 관기(觀機)와 도성(道成)이 바람에 눕는 나뭇잎을 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읽었던 것처럼 풍류란 ‘바람의 흐름을 보고 마음을 읽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풍류는 불가의 단어가 되면서 바람으로 마음을 읽는 길은 경지로 승화된다.

순례도 풍류와 마찬가지로

생각이 든다. 순례 길에는 안개도 끼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분다. 순례자는 안개와 비와 바람 속에서 그것이 던지는 상징을 짐작하며 산아 상념에 잠긴다. 순례란 눈 뜨고 다니는 수행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선방의 정적인 정진이 아니라 움직이는 정진이 순례인 것이다.

아직도 위산(偉山) 밀인사(密印寺)로 가는 버스 차창에는 빗방울이 흐른다. 수불 스님이 저울질하듯 독백하신다. ‘내가 전생에 한 번 주인을 해 본 산이라면 비가 그칠 것이요, 인연이 없는 산이었다면 비가 계속 내리겠지. 위산 밀인사를 잘 보지 못할 것이다.’ 귀가 절로 기울여진다. 스님은 꿈속에서도 늘 그리던 위산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비는 속절없이 계속 내리고 있을 뿐이다.

▶19면에 계속

“골프장 건립 찬성도 반대도 않는다”

해인사 어정정한 입장에 환경단체들 실망

가야산 골프장 건립재추진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주민대책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인사가 결국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11월 25일 중무소에서 불교환경연대와 대구환경운동연합, 가야산 골프장 재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 등 4 단체를 가졌다. 환경단체와 대책위는 해인사가 2003년과 마찬가지로 골프장 건립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각 스님은 “골프장 건립에 대해 찬·반 여부를 결정할 바 없다. 지금은 과거처럼 반대 여론이 높지도 않기 때문에 해인사가 먼저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간담회는 해인사 총무원 심우 스님과 진행됐다.

심우 스님은 “반대 여론이 거세 지거나 명분히 확실해지면 해인사도 나설 것이다. 골프장 건설로 우

려되는 해인사나 대장경 훼손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3년 국민적 관심사였던 가야산 골프장 건립 반대 운동은 해인사가 참여하면서 여론이 확산되며 공사연장 불허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당시 해인사는 공사 찬성측으로부터 소송에 휘말리고 내부에서도 반대활동 참여에 대한 스님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이처럼 해인사가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자 환경단체와 대책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공정옥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해인사 자체적인 입장이 분명히 있을텐데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을 내놓으니 실망스럽다. 불교계와 계속 공유하면서 자체적으로 반대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hanmail.net

태고종 구족계 수계산림

외국인 포함 150명 합동득도

태고종 총무원은 11월 25~26일 한국불교전승관 대불보전 금강계단에서 제9차 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산림을 통해 태고종 합동득도 30기 중심의 150명(사미 102명, 사미니 48명) 구족계를 받고 정식스님이 됐다. 특히 해외교구(중무원장 종매)에서 혜문(모세 엔슬리), 해광(로버트 겔름), 해도(에리 슈와코) 등 3명의 외국인 스님이 수계를 받았다.

행사는 전계대화상 인공 스님, 교수사리 지족 스님, 갈마사리 혜종 스님을 3회상으로 모시고, 대운·정봉·화경·상하·법경·구산·종매 스님을 7중사로 모신 가운데 봉행됐다.

전계대화상 인공 스님은 “이제 정당한 법기가 됐기에 기쁜 마음으로 계를 주노리”며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서원을 갖고 수행과 포교에 임해달라”고 법문했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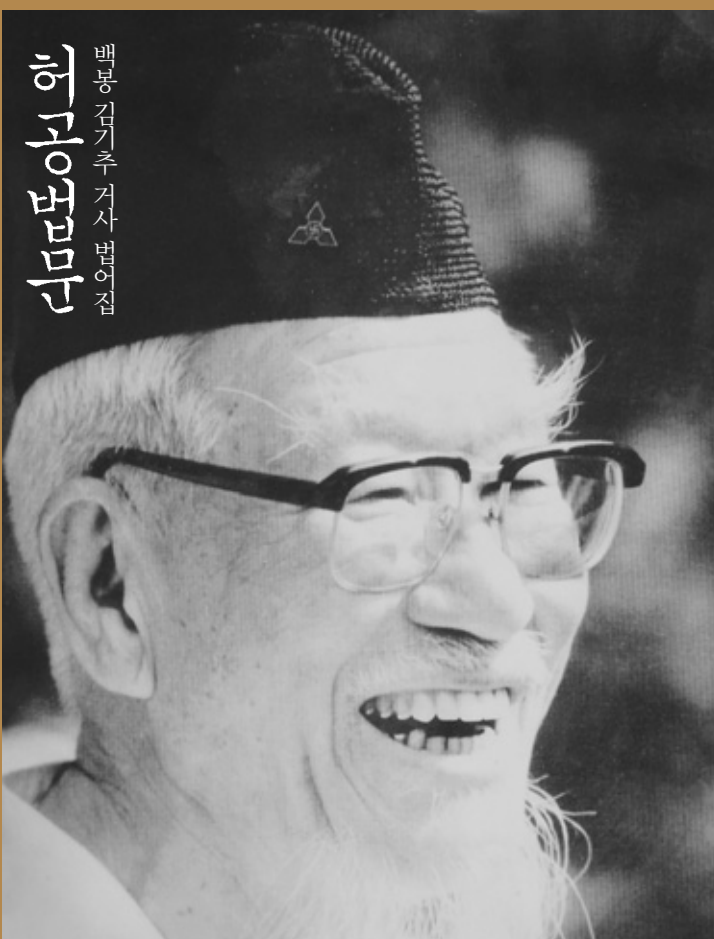
www.hanmaum.org

대형 권역의 법어와 설법기록을 위한 2011년 다이어리 출시!

마음으로 쓰는 다이어리

하루라는 삶의 단 페이지를 마음의 눈으로 지켜보고 마음의 손으로 기록하여 소중한 하루가 기억되세요

구입문의: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031)470-3100



(주)고려원복스 | 주소 | 서울 광진구 능동 279-3번지 길송빌딩 7층 | 전화번호 | 02-466-1207 | 팩스번호 | 02-466-1301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도 하나.

여러분의 몸을 끌고 다니는 그 부처 자리는 죄가 없건만, 여러분이 어찌다 잘못된 탓으로 여러분 자신이 되돌아서 여러분의 부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녁부터는 내 부처를 구하려 나갑시다. 부처를 죽이지 말고 구합시다.

‘부처를 해방시킵시다’ 중에서

“옛날 부처님 당시에는 유마거사가 있었고, 중국에는 유명한 방거사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부설거사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백봉거사가 있소.”

동광 해두 선사

| 허공법문 | 편자 장순용 | 420페이지 | 값 15,000원 |



*** 화제의 신간 ***